

# 발표 요약문

## 코로나19가 바꾼 국제 질서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김앤장 변호사)

### 키워드: 새로운 세계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영구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이 재개되기는 하겠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립을 통해 습득된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장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4-5년은 기다려야 할 공산이 큼니다. 해외 여행이 향후 수년 간 여행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공급 다변화와 시장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중국에 제조 생산을 상당부분 의존하던 전 세계는 중국의 폐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의 필요성은 주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효율성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은 기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급원을 모색하고 고객을 다각화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삶의 방식과 기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봅니다.